

GM 구조조정, 자동차산업 재편 신호탄 되나

경영 위기 아닌 미래 전기차·자율주행차 대응 선제적 조치 현대기아차 수익성 확보 드론 차량공유업체 협약 다변화 모색

미국 거대 자동차기업 제너럴모터스(GM)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자동차산업 전반에 파장이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GM의 구조조정이 단순한 '공장 폐쇄'나 '인원 감축'의 문제가 아닌, 닥쳐올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영위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선제적 조치=GM은 지난 26일(현지시각) 7곳의 공장 가동 중단과 1만4000여명의 인력 감축을 담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GM은 그것에 적응해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매리 배라 GM 최고경영자도 "경기하강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업계에서 GM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생산량 감축에 들어가는 등 신속한 행보를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소형 세단에 대한 관심이 가라앉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공유경제 시장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생산과 투자 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성격의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의 경우 정책적 규제 완화와 새로운 수요의 창출 속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비수의 부문을 정리하면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BMW와 피아트는 인텔과 함께 자율주

행차 개발에 나섰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와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 다임러의 디터 체체 최고경영자는 "전기차에 100억유로(약 13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전기차에 베풀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우리는 올인(다 걸기)한다"고도 했다.

◇현대기아차, 신산업 도전=현대기아차도 일찌감치 수소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는 등 외국 기업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장, 현대차의 경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광주시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소서비스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상호 협력 키로 했다. 광주에 6대의 수소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등 전국 수소서비스 시장 창출과 확산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또 미국 브라운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뇌공학, 생물학, 심리학 등이종(異種) 분야와의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

션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역량과 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미국 드론 분야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톱플라이트 테크놀로지스'에 투자하는가 하면, 기아차는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그랩'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전기차(EV) 기반의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내연기관 차 생산에서만 안주하는 게 아닌 자율주행차, 전기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테크놀로지 컴퍼니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은 127만2551대로, 전년동기 같은 기간(128만6031대)보다 1.0%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친환경차의 경우 올 10월까지 7만4006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29.0%가 증가하는 등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08.22 (+8.80)	↑ 금리(국고채 3년) 1.92 (+0.01)
↓ 코스닥 700.12 (-0.55)	↓ 환율(USD) 1126.50 (-2.90)

금리인상 기대에...가계대출금리 오름세

주담대 0.02%포인트↑ 3.31%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난달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다. 예금금리는 2%에 근접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8년 10월 중 금융기관 기준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대출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기준)는 3.64%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은행 가계대출금리는 연 3.64%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8월(3.66%)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계대출금리는 7~9월 내리막을 타다가 오름세로 반전했다. 이달 기준금리 상승 기대감이 시장 금리에 먼저 반영되며 대출금리가 오름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0.02%포인트 오른 3.31%를 나타냈고 집담대출은 0.05%포인트 오른 3.45%를 가리켰

다. 일반 신용대출(4.45%)도 0.06%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기업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오른 3.65%로 조사됐다.

대기업 대출금리(3.42%)는 고금리 대출 취급이 늘며 0.21%포인트 상승했다. 반대로 중소기업(3.84%)은 정책성 저금리 대출 상품 취급이 늘면서 0.04%포인트 하락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는 0.09%포인트 상승한 1.93%였다. 이는 2015년 2월(2.04%) 이후 가장 높다.

그중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금리는 1.90%로 0.08%포인트 올랐다. 순수저축성 예금금리도 2015년 3월(1.91%) 이후 최고다.

시장 금리가 오름 데다 은행들이 유동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고금리 예금 특판 등을 강화한 영향이다.

잔액 기준으로 본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는 2.32%포인트로 전월과 같았다.

/연합뉴스



강명구 한전 신사업개발부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세이드 아크람 BPDB 조달부서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27일 방글라데시 전력 설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미·중 무역분쟁 대응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수출지역 다변화 해야

한은 광주전남본부 세미나

미·중 무역분쟁의 틀바구니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 제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지역을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석민 조선대 교수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8일 개최한 '미·중 무역분쟁과 광주전남 지역경제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 및 최종수요가 각각 0.2%, 0.5% 감소하면 광주·전남 석유화학, 전기, 전자기기, 운송장비 분야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과 제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출지역 다변화와 최종재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FTA 활용도 제고, 원산지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은 "업계는 가격경쟁력과 범용 중간재에 의존하는 수출구조를, 제품과급화를 통해 최종재 및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전, 방글라데시와 530만 달러 'GIS 전력관리시스템 사업' 체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27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방글라데시 전력 개발위원회와 530만 달러 규모의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전력설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는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위원회(BPDB) 세이드 아크람(Sayeed Akram) 조달부서장 등 현지 정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전은 향후 18개월간 치타공(Chittagong)을 포함한 4개 도시에서 ▲GIS 운영시스템 구축 ▲DB화 작업 ▲배전설비 마스터플랜 수립 ▲교육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에는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기자재를 만드는 국내의 우수 제조사들도 다수 참여한다.

방글라데시는 연 평균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1인당 전기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공급량이나 전력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전기보급률은 약 80%인데 반해 정전이 잦고 송배전 손실률이 11%(우리나라 3.6%)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전이 각종 지리 정보를 디지털화해 전력설비를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BPDB의 수익성과 운영 효율

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글라데시 사업은 2015년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의 성과이며 송배전 손실감소 효과가 큰 'KEPCO형 GIS모형'의 우수성을 해외 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신사업개발부장은 "한전은 지난 2008년에 방글라데시 송배전 컨설팅 등 총 5건의 전력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BPDB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안·바깥면 비대칭 타이어 무늬 살피고 구동축 2개만이라도 겨울용 장착하라"

겨울철 타이어 관리법

예년보다 빠르고 강한 한파가 예상되면서 일찌감치 차량 월동 준비에 나서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인 사계절용 타이어의 경우 영상 7도 이하에서는 고무가 경직되는 현상이 발생해 겨울철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차량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추운 날씨의 눈길, 빙판에서도 제동 성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겨울용 타이어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도움을 받아 겨울철 차량 타이어 관리법을 들어봤다.

우선, 비대칭 타이어 무늬를 살필 것을 조언한다. 인간의 발바닥 구조가 좌우 비대칭인 점에서 착안한 인-아웃 패턴은 타이어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의 패턴을 각각 다르게 설계, 주행안정성과 배수성, 제동성능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겨울용 타이

어 인터크래프트 WP72, SUV전용 윈터크래프트 WS71 타이어 등이 꼽힌다.

금호타이어의 전문 특화유동점인 '타이어프로' 등 전문 매장을 활용하는 것도 팁이다. 무료 공기압점검, 위치교환, 펌크수리 서비스 등을 언제나 진행한다. 이벤트도 수시로 열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네 바퀴 모두 겨울용으로 장착할 여건이 안되면 전륜, 후륜 등 구동축 2개만이라도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좋다. 구동축에 여름용 타이어와 겨울용 타이어를 혼용하면 제동 성능이 달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타이어 점검이 필수적이고 겨울용 타이어를 여름에도 사용할 경우 블록이 깊고 고무가 부드러워 고속 주행 시 차량의 흔들림이 심해지고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불편을 겪게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